

유리에게

안녕? 유리야

나는 평택 효덕초에 다니는 김강우라고 해.

너와 같은 삼학년이야. 반가워!

엄마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겠구나. 엄마를
잃은 너를 생각하다가 눈물이 났어.

“ 학교 갈 때 계속 누워서 잠만 자는 엄마,
학교 준비물도 챙겨주지 않고 밥도 안 주고
잠만 자는 엄마, 엄마 몸이 너무 차가워서
이불을 덮어 주었다.” 장면에서는 또 눈물
한 방울! 학교에서는 준비물 리코더를 가져오지
못 해서 선생님께 혼나고 교실 뒤 쪽에 혼자
서서 벌서는 너가 참 안타까웠어.

나도 유치원 다닐 때 할아버지가
돌아가셔서 우리가 얼마나
슬플지 그 마음 조금은
알 수 있어.



제7회
채속 인물에게 보내는
한글 손편지

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을까...

그래도 꿈에서라도 엄마를 만나니까 참
다행이다.

음리아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너를 항상
걱정하고 지켜보고 계실거야. 그러니까
씩씩하게 살아. 내가 많이 많이 응원할게!
그럼 안녕.

2021년 8월에
강우가

